

“부르면 달려갑니다”… 나주, 콜버스 ‘시동’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자 최종선정 앱·콜센터 통해 호출 신개념 교통… 9월부터 시범운영

전라남도 나주시는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운영 플랫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인 '김현명 스튜디오 갈릴레오'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고 가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인 '나주콜 버스'가 9월부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을 기치로 승객 편의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빛가람동에 첫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나주콜 버스는 명칭으로 추진 예정인 나주시 DRT(나주콜 버스) 시범사업에 따라 최적화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DRT차량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이 아닌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 시간 등이 탄력적으로

설계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4만명에 육박하는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내부 통행량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도시 내부 공공형 순환버스 노선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의 노선 공급 요구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나주콜 버스는 빛가람동 일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 된다. 버스 호출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 주민 등을 고려해 콜센터를 통한 버스 호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스튜디오 갈릴레오에서 자체 개발한 DRT플랫폼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나주콜 버스 운행 시 승객 평균 대기시간은 기존 32.2분에서 7.3분으로 77.3%가량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바로 DRT(나주콜 버스)' 시범사업 조감도.

차량 운행 거리, 운행 비용 또한 기존 대비 각각 50.3%, 8.5%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접근성, 편리성은 물론 운수사와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이영태 시장은 “혁신도시 나주콜 버스는 일반 승객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이자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영준 시장은 “민선 8기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승객 이동 편의를 최우선한 지역 전체 노선 개편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정빈 기자 bjb2@skyedaily.com



전라북도 김제시가 3일 '김제시 문화의 날·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김제'를 개최한다. 김제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김제 김제시, 문화의날 내일 개최

전라북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3일 김제향교 앞 광장에서 '김제시 문화의 날·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김제'를 개최한다.

행사 주제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상생을 꿈꾸는 '청춘 한마당'이다.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청년단체인 '농촌을 보고 배우다'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사업을 주관하는 '김제시 농어촌 지원센터'와 협업해 기존의 행사와 차별화했다.

행사는 크게 아트장터·프리마켓·문화공연으로 주요 행사 내용은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 부스 △캐리커처·캘리그래피·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 △청년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30여 개 프리마켓·아시아·농특산물직거래장터 △문화공연(박태영 매직쇼·리운 서커스·김성수 재즈콘서트) 등이다.

정 시장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문화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시민 모두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본 행사를 통해 김제시 문화의 날을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 문화의 날'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전북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서산 “전통시장 활성화”… 내일 어울림 행사

동부전통시장서 '2023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공연·15개 체험 부스 마련

충청남도 서산시는 동문동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2023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3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동아리인 사물놀이팀, 라인댄스팀, 난타팀이 식전 공연을 할 예정이며 천연비누 만들기, 양말공예, 페이스 페인팅, 달고나 체험 등 총 15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총 18개 어린이와 성인팀이 참가하는 장기 자랑과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열린다.

이완섭 시장은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참여하는 모든 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주민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선 기자 hspark@skyedaily.com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2023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3일 개최된다. 서산시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2023 전주독서대전'이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10월에 열린다. 2022년에 열린 전주독서대전 기획체험 행사 모습. 전주시

'전주독서대전' 10월 개최… 주제는 '다시, 질문 곁으로'

독서 통해 질문 능력 키우고 답을 스스로 찾아갈 기회 제공… 사전 이벤트도 진행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2023 전주독서대전'이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총 4회에 걸친 실무기획단 회의를 거쳐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주제를 '낯선 질문을 던지며 삶의 답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여정에 함께한다'는 뜻을 담은 '다시, 질문 곁으로'로 최종 확정했다.

독서를 통해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기회를 제공할 '2023 전주독서대전'은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

본문화관 일원에서 강연·공연·전시·체험·북마켓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본 행사에 앞서 전주독서대전 연중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이 자신의 '인생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매월 13일 전주독서대전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고 있다.

또한 3월27일 '2023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해 △작가와와의 만남 △독서릴레이 △100일 필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수 시 도서관본부장은 “올해 전주독서대전에서는 독서와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질문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5일부터 23일까지 '전주독서대전'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질문을 공유하는 '질문을 부탁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심도로 개설 완료

서산시, 인지중 통학로 일원 등하교길 안심 통행 개선

충청남도 서산시는 인지중학교 통학로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인지중 학교길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인지중 진출입로 110m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 공간과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인지중 학생 A군은 “평소 등하교할 때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러웠다”며 “학교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운전자도 조심하고 학생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중학교 일원 통학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선 기자 hspark@skyedaily.com



충청남도 서산시는 인지중학교 통학로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개설 공사를 완료했다. 서산시



전라남도 구례군은 3일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이른 여름, 디저트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구례군

디저트와 공연이 있는 장터 구례군, 디저트 피크닉 열어

전라남도 구례군은 3일 오후 5시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이른 여름, 디저트 피크닉'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저트와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노고달장'과 'COMETRY' '문화대장간'과 유튜브 '빨강레몬'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디저트 피크닉은 카페 무우루, 빵앗간, 구릉고개, 사계양갱 등 다양한 업체의 디저트를 맛보고 청년 창업인들의 제품과 농가들이 구슬땀 흘려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꾸며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 공방과 아가자기한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열매장, 용방초 마을학교에서 준비한 어린이 플리마켓 등도 알차게 구성했다.

김진홍 기자 jhkim@skyedaily.com